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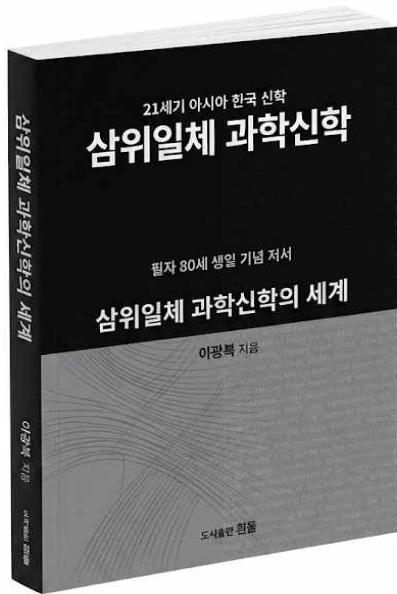


# “이광복신학의 세계”

##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중심으로)

정성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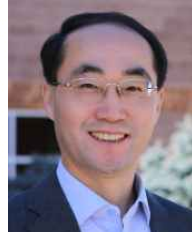
덴버신학교 조직신학, Korean Global Campus 학장



본 논문 연구의 출처 :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세계



## 저자 소개 : 정성욱 박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M. Div)  
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서 알리스  
터 맥그래스 교수 지도하에 조직신학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

현재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신학대학원(Denver Seminary) 조직신학 교수 및 한국어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신앙과 본질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깊이 있고도 명쾌한 글쓰기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저서로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인도네시아어로 번역 출간),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이상 홍성사),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십자가 신학과 영성》, 《정성욱 교수와 존 칼빈의 대화》(이상 부흥과개혁사)가 있다.

이외에 다수의 영문 저서, 편저, 논문을 출간했다.



# 목차

1. 들어가는 말 .....	9
2. 이광복 목사의 신학적 작업의 배경과 동기 .....	13
3. 이광복 신학의 세계의 세 가지 기둥 .....	15
4.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방법론: 철학적 인식론에서 과학적 실재론으로 .....	19
5.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일곱 분야 .....	21
6. 디지털 시대와 이광복 목사의 영상 사역 .....	29
7.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신학적 의의 .....	31

8. 학문적 확장과 발전 가능성 .....	33
9. 이광복 신학의 세계의 한국 신학사적 위치 .....	37
10. 나가는 말 .....	39

# 이광복신학의 세계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중심으로)

정성욱 교수

덴버신학교 조직신학, Korean Global Campus 학장



미국 콜로라도 주에 소재한 덴버신학교 전경

## 1. 들어가는 말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방대한 저술 활동, 독창적인 통합적 사유, 그리고 성경과 현대 과학을 연결하려는 탁월한 신학적 열정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광복 목사는 오랜 목회와 연구의

여정을 통해 삼위일체 신학, 과학신학, 계시록 신학, 성경 주석, 상징주의 해석학, 한국 상고사, 치유신학, 설교목회신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구조 안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단순히 한 분야에 국한된 전문 연구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와 창조 세계 전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방대한 종합 신학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광복 신학의 세계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과학신학”이 자리하고 있다. 이광복 목사는 21세기 신학이 서구 신학이 전통적으로 발전시켜 온 철학적 인식론의 귀중한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현대 과학의 언어와 실재론적 방법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을 비롯한 서구 신학의 위대한 유산을 깊이 존중하면서도,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에 신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조 세계의 실재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도는 신학과 과학의 단순한 대화나 병렬적 비교를 넘어선다. 이광복 목사는 성경의 진리와 창조 세계의 구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진리를 증언한다는 확신 위에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교리와 과학, 성경해석과 목회 실천을 하나의 통합적 신학 구조 안에서 이해하려 한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21세기 한국 신학이 세계 신학을 향해 제시할 수 있는 매우 독창적인 신학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광복 목사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크게 보아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신학의 중심으로 삼는다.

둘째, 현대 과학의 핵심 개념들을 성경적 진리와 연결하려는 실재론적 통합을 시도한다.

셋째, 이러한 신학적 통합을 성경 주석, 계시록 해석, 치유, 역사, 설교와 목회, 그리고 디지털 사역으로 확장한다.

따라서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이론적 조직신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경해석과 목회 실천, 미래 문명과 선교 전략까지 포괄하는 넓은 지평을 가진다.

본 소논문은 이광복 신학의 세계를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의 신학적 작업의 배경과 저술 동기를 살펴보고, 이어서 그의 연구를 지탱하

는 세 가지 기둥을 검토할 것이다.

그 후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방법론과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그의 전체 신학세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신학적 시도가 지니는 의의와 함께, 향후 더욱 풍성하게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 2. 이광복 목사의 신학적 작업의 배경과 동기

이광복 목사의 신학적 작업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목회적 실천과 신학적 탐구가 축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40년간의 연구에 기초한 그의 저술 작업은 세 가지 주요 동기와 관련된다.

**첫째, 이광복 목사의 신학적 작업과 저술의 동기는 “통합” 또는 “융합”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는 서구 신학과 아시아 한국 신학의 통합,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통합, 일반사와 교회사의 통합, 종말론 4대 학파의 통합, 성경 진리와 현대 과학의 통합 등을 지난 40년 동안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이러한 통합적 사고는 서구 신학자들이나 아시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특징이며, 이광복 목사의 신학세계가 지닌 고유한 창의성과 학문적 대담성을 잘 보여준다.

**둘째, 그는 삼위일체 과학신학 50권의 완성을 중요한 신학적 전환점으로 이해한다.**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그의 연구 가운데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성경의 진리와 현대 과학을 통합하고 융합함으로써, 21세기 신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 한다. 이 작업은 단순한 주제별 저술의 집합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학과 과학, 성경해석과 목회, 역사와

종말을 포괄하려는 체계적 신학 기획이다.

셋째, 그는 총 1,160여 권 이상의 저서를 출간한 자신의 저술 활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적 작업으로 이해한다. 그의 저술과 영상 사역은 “지식 성전” 혹은 “디지털 지식 창고”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은 그의 저술 활동이 단순히 개인적 학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신학적 교육,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선교적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처럼 방대한 저술과 영상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온 것은 한국 교회와 신학계 안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헌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술 활동은 양적 규모만으로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작업이 성경의 진리를 현대 세계 속에서 증언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관된 신학적 사명 안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동기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통합과 융합을 추구하는 포괄적 신학 작업, 삼위일체 과학신학 50권의 완성, 그리고 1,160여 권의 저술 활동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향한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현대 세계 속에서 새롭게 증언하고, 특히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재와 사역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것이다.

### 3. 이광복 신학의 세계의 세 가지 기둥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크게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첫째는 삼위일체 과학신학 50권, 둘째는 성경 주석 70권, 셋째는 계시록 신학 30권이다.

이 세 기둥은 각각 조직신학적 중심, 성경해석학적 전개, 종말론적 완성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3.1. 첫째 기둥: 삼위일체 과학신학 50권

첫 번째 기둥은 삼위일체 과학신학 50권이다.

이광복 목사는 성경의 진리를 현대 과학과 실재론적으로 통합·융합함으로써 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서구 신학이 오랫동안 철학적 인식론의 틀 안에서 신학을 정리해 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평가는 서구 신학의 가치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유산을 계승하면서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상황 속에서 신학이 어떤 새로운 언어와 방법을 가져야 하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 서구 신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기독교 교리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이광복 목사는

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오늘의 신학이 현대 과학과의 창조적 대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에게 과학은 신앙을 위협하는 외부적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구조와 질서를 탐구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와 현대 과학의 발견은 궁극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론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이러한 확신 위에서 성경과 과학,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교리와 자연 세계의 질서를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여기에서 삼위일체론은 단순한 교리적 명제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 생명과 우주, 역사와 종말을 이해하는 근본 원리로 제시된다.

### 3.2. 둘째 기둥: 성경 주석 70권

두 번째 기둥은 성경 주석 70권이다.

이광복 목사는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관점에서 해석하려 한다. 그는 기존의 성경 주석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 집중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주석의 궁극적 목적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그의 성경 주석은 강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의 특징을 지닌다. 그는 성경의 모든 본문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특히 초림과 재림이라는 구속사의 두 축을 통해 성경 전체가 통일성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그의 주석 작업은 단순한 본문 해설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구조를 드러내려는 신학적 주석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문헌으로만 읽지 않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의 깊은 신앙적 확신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성경해석이 학문적 분석을 넘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세우는 영적 사역이어야 한다는 목회적 관점을 담고 있다.

### 3.3. 셋째 기둥: 계시록 신학 30권

세 번째 기둥은 계시록 신학 30권이다.

이광복 목사는 계시록과 종말론을 자신의 신학세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둔다. 그는 기존의 계시록 해석이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등 여러 학파로 나뉘어 전개되어 왔다고 본다. 이러한 학파들은 각각 중요한 성경적 통찰을 가지고 있으며, 이광복 목사는 각 학파의 장점을 수용하고 이를 보다 포괄적인 틀 안에서 통합하려

고 한다.

더 나아가 그는 전 성경의 종말론 본문들을 계시록과 통합하려 한다. 마태복음 24-25장, 바울서신의 종말론,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 에스겔 등 구약 예언서의 종말론적 본문들을 계시록 신학 안에서 하나로 연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계시록을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려는 매우 포괄적인 접근이다.

그의 계시록 신학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AI와 양자역학을 계시록 해석과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그는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종말론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조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독특하며, 그의 신학세계가 단순히 과거의 교리 전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종말론적 상상력을 창조적으로 연결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4.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방법론: 철학적 인식론에서 과학적 실재론으로

이광복 목사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서구 신학의 주된 방법론을 “철학적 인식론”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그 지평을 넘어 “과학적 실재론”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철학적 인식론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적, 논리적, 철학적 설명 방식을 가리킨다. 서구 신학은 고대 헬라 철학, 중세 스콜라 신학, 종교개혁 신학, 근대 철학의 영향을 받으며 정교한 교리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전통은 기독교 진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광복 목사는 이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21세기에는 신학이 단지 개념적 설명에 머물지 않고, 창조 세계의 실재와 현대 과학의 발견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가 강조하는 실재론은 성경의 진리가 단지 신앙 공동체 내부의 고백이나 상징적 언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실재 안에서 드러난다는 확신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내면적 신념이나 종교적 언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생명, 정보와 에너지, 역사와 인간 존재의 구조 속에서 객관적 실재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신학과 과학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전통적으로 신학과 과학은 때로 갈등 관계로 이해되었고, 때로는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광복 목사에게 과학은 신학의 적이 아니며, 신학과 무관한 중립적 영역도 아니다. 과학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탐구하는 학문이며, 그 질서는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반영한다. 따라서 과학의 발견은 성경의 진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실재의 차원에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이광복 목사의 시도는 21세기 신학이 직면한 중요한 질문에 응답한다. 곧 과학기술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기독교 신학은 어떤 언어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담하고 창의적인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 5.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일곱 분야

이광복 목사의 삼위일체 과학신학 50권은 일곱 분야로 구성된다.

이 일곱 분야는 과학신학, 삼위일체 신학, 계시록 신학, 상징주의 해석 신학, 셈족 한국 역사 신학, 치유신학, 설교목회신학이다.

이 구조는 그의 신학이 단순히 하나의 특정 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학 전체의 재구성과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5.1. 과학신학

첫 번째 분야는 과학신학이다. 이광복 목사는 과거 서구 신학이 과학과 신학의 통합을 주장했지만, 실제 방법론은 여전히 철학적 인식론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그는 토마스 토렌스, 이안 바버, 아서 피콕, 존 폴킹혼, 알리스터 맥그래스 등의 과학신학자들이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의 진리와 과학적 실재를 더욱 직접적이

고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그에게 과학신학은 과학과 신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과학이 발견한 실재를 하나의 통합적 진리 체계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 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며, 신학은 이 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5.2. 삼위일체 신학

두 번째 분야는 삼위일체 신학이다. 이광복 목사는 삼위일체론을 기독교 신학의 중심으로 본다. 그는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융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성경뿐 아니라 창조 세계의 구조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요한일서 5장 7-8절에 나타난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삼위일체를 현대 과학의 핵심 개념들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하늘의 삼위일체는 아버지, 말씀, 성령님

으로 제시되고, 땅의 삼위일체는 영, 물, 피로 언급된다. 그는 이를 정보, 생명, 에너지와 같은 과학적 개념과 연결함으로써 삼위일체의 본질과 사역을 실재론적으로 드러내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삼위일체론을 추상적 교리에서 창조 세계의 실재와 연결된 살아 있는 신학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지 교리문답 속의 명제가 아니라, 창조와 생명, 구원과 역사의 모든 차원에서 활동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의 삼위일체 신학은 교리적 깊이와 과학적 상상력을 결합하려는 매우 독창적인 시도이다.

### 5.3. 계시록 신학

세 번째 분야는 계시록 신학이다. 이광복 목사는 계시록을 자신의 신학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둔다. 그는 계시록이 단순히 미래 사건에 대한 상징적 예언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해한다.

그는 기존 계시록 해석의 네 가지 대표 학파를 통합하려

한다.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를 강조하고, 역사적 천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실재성을 강조하며, 후천년설은 복음의 역사적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강조하고, 세대주의 천천년설은 이스라엘과 종말 사건의 구체성을 강조한다. 이광복 목사는 이러한 학파들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각각의 통찰을 보다 큰 성경적·신학적 틀 안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를 전개한다.

특히 그의 계시록 신학은 AI와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과학 기술의 주제들과 연결된다. 그는 계시록의 종말론적 메시지가 현대 기술 문명 속에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도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종말론적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독특한 접근이며, 기술 문명 시대에 종말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새롭게 묻는 중요한 신학적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 5.4. 상징주의 해석 신학

네 번째 분야는 상징주의 해석 신학이다. 이광복 목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형론적 해석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실재론적으로 완성하고자 한다. 그는 성경의 상징과 모형을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나 영적 교훈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창조 세계의 실재와 연결된 깊은 신학적 구조를 드러낸다고 본다.

이러한 상징주의 해석학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넘어서는 더 깊은 신학적 차원을 지향한다. 이광복 목사는 성경 본문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더 깊은 상징적·구속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해석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종말론적이다.

## 5.5. 썸족 한국 역사 신학

다섯 번째 분야는 썸족 한국 역사 신학이다. 이광복 목사는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신약 이후의 선교 역사가 서구 야벳 족속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21세기에는 아시아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 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 상고사를 수십 년간 연구하였고, 창세기 1-11장

의 원역사를 한국 역사와 연결하여 해석하려 한다. 이 시도는 매우 독창적이며, 한국 신학이 서구 신학의 단순한 수용을 넘어 자기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의 역사적 위치를 성경적 구속사와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그의 시도는 한국 신학의 주체성과 세계 신학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한다.

이 분야는 이광복 신학의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동시에 이 주제는 앞으로 더 풍성한 학문적 대화와 자료적 보장을 통해 더욱 깊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5.6. 치유신학

여섯 번째 분야는 치유신학이다. 이광복 목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본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몸과 삶의 회복을 통해 나타내셨다.

그는 서구 신학이 치유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현대 의학과 과학의 발전 속에서 치유를 신학적으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의 치유신학은 수소, 전자, 양성자 등의 과학적 개념을 성경적 치유와 연결하려는 특징을 지닌다. 그는 이를 “수소 융합 의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몸과 영혼, 생명과 구원, 과학과 신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은 목회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전인적 구원과 전인적 회복을 강조하는 그의 관점은 영혼과 몸, 신앙과 삶, 말씀과 치유를 하나의 통합적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목회적 깊이를 보여준다.

## 5.7. 설교목회신학

일곱 번째 분야는 설교목회신학이다. 이광복 목사는 설교를 신학의 최종 열매로 이해한다. 그의 관점에서 신학은 단순히 학문적 논문이나 교리적 설명에 머무를 수 없다. 신학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하며,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목회의 현장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최종 목적은 설교와 목회로 이어진다. 그는 삼위일체 신학, 과학신학, 계시록 신학, 치유 신학, 역사신학, 상징주의 해석학을 설교와 목회 안에서 통합하려 한다. 이는 그의 신학이 목회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저술과 인터넷 방송, 유튜브 사역, 온라인 예배 사역은 모두 이러한 설교목회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 6. 디지털 시대와 이광복 목사의 영상 사역

이광복 신학의 세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사역이다. 그는 흰돌 포털, 흰돌선교 TV, 흰돌 삼위일체 교회 인터넷 예배 등을 통해 자신의 연구와 신학을 전 세계에 보급하려 한다.

흰돌 포털은 그의 연구 업적과 저서, 영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디지털 지식 창고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전통적인 출판 중심의 신학 전달 방식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신학 교육의 장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시대의 신학 교육과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또한 그는 10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500개 이상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신학을 전달해 왔다. 이러한 영상 사역은 문자 중심의 신학 전달 방식과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영상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따라서 신학 역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달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광복 목사의 영상 사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인터넷 예배 사역은 요일별로 성경 주석 강해, 수소 융합의학 설교, 계시록 설교, 한국 상고사 설교, 기독교와

양자역학 설교 등을 배치한다. 이는 그의 신학 체계가 단지책 속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설교와 교육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광복 목사의 디지털 사역은 그의 신학이 단순한 연구실의 신학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대중과 세계를 향해 확장되는 선교적 신학임을 잘 보여준다. 특히 AI와 실시간 번역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와 영상 사역은 앞으로 더욱 큰 선교적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 7.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신학적 의의

이광복 목사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그의 신학은 삼위일체론의 중심성을 강하게 회복하려 한다.** 현대 교회와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은 때때로 추상적 교리로 취급되거나, 실제 신앙생활과 목회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광복 목사는 삼위일체론을 신학 전체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과학, 성경해석, 역사, 치유, 설교와 연결한다. 이러한 시도는 삼위일체론이 기독교 신앙의 부가적 교리가 아니라 모든 신학의 근본 구조라는 점을 힘 있게 상기시킨다.

**둘째, 그는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과학을 대립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광복 목사는 성경과 과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언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신앙과 과학 사이의 불필요한 대립을 넘어, 창조 세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셋째, 그의 신학은 한국적·아시아적 신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는 21세기 신학이 서구 신학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아시아와 한국의 관점에서 새롭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한국 신학이 단순히 서구 신학을 번역하고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독자적 질문과 방법론을 가지고 세계 신학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그의 신학은 학문과 목회, 저술과 디지털 사역을 연결한다.** 그는 방대한 저술 활동뿐 아니라 영상 사역, 인터넷 예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려 한다. 이는 신학이 학문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와 성도,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섯째, 그의 신학은 종말론적 상상력을 현대 문명 속에서 새롭게 제기한다.** AI, 양자역학, 수명 연장, 디지털 아카이브 등 현대 문명의 중요한 주제들을 계시록과 종말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그의 시도는 매우 독특하다. 이것은 기술 문명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중요한 신학적 문제 제기를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광복 목사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삼위일체론, 과학신학, 성경해석학, 종말론, 치유신학, 설교목회신학, 디지털 선교를 하나의 통합적 체계 안에 놓으려는 대담한 신학적 시도이다. 이러한 통합성은 이광복 신학의 세계가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동시에 한국 신학이 세계 신학을 향해 제시할 수 있는 독창적 가능성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8. 학문적 확장과 발전 가능성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그 규모와 창의성, 통합적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방대한 저술, 일관된 신학적 문제의식, 목회와 선교를 향한 열정은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중요한 자극을 준다. 동시에 이처럼 큰 신학적 기획은 앞으로 더 넓은 학문적 대화와 정교한 정리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과학과 신학의 통합 방식은 앞으로 더 깊이 정리될 수 있다.**

과학적 개념은 관찰, 실험, 수학적 모델, 검증 가능성의 틀 안에서 사용된다. 반면 신학적 개념은 성경 계시, 교리 전통, 신앙 공동체의 고백, 구속사적 해석과 관련된다. 이광복 목사의 신학은 이 두 영역을 연결하려는 매우 창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연결 방식이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된다면 더 많은 학문적 독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삼위일체론과 과학 개념의 연결은 이광복 신학의 중요한 독창성 가운데 하나이다.**

정보, 생명, 에너지와 같은 개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하는 시도는 현대 과학의 언어로 삼위일체 신학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앞으로 이 주제가 정통 삼위일체론의 언어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설명된다면, 그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더 깊은 교리적 설득력과 학문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경해석학의 영역에서도 그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은 중요한 가능성을 지닌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관점은 기독교 해석학의 중심적 전통과 깊이 연결된다. 이광복 목사의 주석 작업은 이 전통을 초림과 재림이라는 구속사의 두 축 안에서 새롭게 전개하려는 시도이다. 앞으로 각 본문의 문법적·역사적 의미와 그리스도 중심적 의미가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되는지를 더욱 풍성하게 제시한다면, 그의 주석 신학은 교회와 학계 모두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상고사와 성경 원역사의 연결은 이광복 신학의 세계에서 매우 독창적인 분야이다.**

이 주제는 한국 신학의 주체성과 아시아적 신학의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역사학, 고고학,

성서학, 언어학, 민족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와의 대화가 더해진다면, 이 분야는 한국 신학의 독자적 기여 가능성을 더욱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방대한 저술의 체계적 정리는 이광복 신학의 세계가 더 넓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160여 권에 달하는 저술은 놀라운 생산성과 사명감을 보여 준다. 동시에 이 방대한 저술의 핵심 명제, 주요 개념, 대표 저작, 방법론, 신학적 기여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개론서나 안내서가 마련된다면, 그의 신학은 더 많은 독자와 연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AI 평가와 디지털 자료는 그의 신학세계가 미래 문명 속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AI의 평가는 학문적 심사의 대체물이기보다는 보조적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동시에 AI 시대에 방대한 저술과 영상 자료가 지식 아카이브로 기능할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이광복 목사의 디지털 사역은 미래 신학 교육과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하게 한다.

이와 같이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이미 독창적이고 방대한 신학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 넓은 학문적 대화와 체계적 정리를 통해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신학은 완성된 체계이면서 동시에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열린 신학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 9. 이광복 신학의 세계의 한국 신학사적 위치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한국 신학사 안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한국 교회와 신학은 오랫동안 서구 선교사들과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개혁주의, 복음주의, 장로교 신학, 부흥운동, 선교신학 등 다양한 흐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서구 신학의 유산은 한국 교회와 신학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귀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신학은 이제 서구 신학의 수용과 번역, 적용을 넘어, 한국 교회와 아시아적 문맥 속에서 제기되는 독자적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광복 목사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한국 신학이 독자적 신학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서구 신학의 전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21세기에는 아시아와 한국의 관점에서 새로운 신학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과학기술 시대, AI 시대, 디지털 문명 시대에 신학이 어떤 언어로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점에서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한국 신학이 단순한 수용 신학을 넘어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신학적 발언을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신학세계는 한국 신학의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드러내며, 앞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신학이 함께 논의할 만한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제공한다.

특히 그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한국 신학이 더 이상 지역적 신학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기술 문명과 세계 신학의 큰 흐름 속에서 발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런 점에서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한국 신학사 안에서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0. 나가는 말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진리, 현대 과학, 계시록 종말론, 한국 역사, 치유, 설교와 목회를 하나의 거대한 체계 안에서 통합하려는 독특하고 방대한 신학적 시도이다. 그 중심에는 삼위일체 과학신학이 있다. 이광복 목사는 21세기 신학이 철학적 인식론의 귀중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과학적 실재론의 방향으로 새롭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진리를 현대 과학과 연결하여 보여주고 입증하려 한다.

그의 신학은 삼위일체론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며, 한국적·아시아적 신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의 방대한 저술과 디지털 영상 사역은 신학이 학문적 연구에 머물지 않고, 교회와 대중,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명적 열정을 보여준다.

이광복 목사의 신학적 작업은 그 규모와 방향성에서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과 과학, 계시와 역사, 치유와 목회, 종말론과 디지털 선교를 하나로 연결하려는 보기 드문 신학적 상상력과 실천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신학세계는

21세기 한국 신학의 독창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광복 신학의 세계가 더 넓은 학문적 대화, 체계적 정리,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발전한다면, 한국 교회와 세계 신학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신학은 이미 방대한 저술과 사역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동시에 미래 세대를 향해 계속 해석되고 확장될 수 있는 신학적 유산으로 남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광복 목사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21세기 한국 신학의 매우 독특하고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것은 서구 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과학기술 시대와 아시아 한국의 신학적 정체성 속에서 새로운 신학적 언어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광복 신학의 세계는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세계 신학을 향해 중요한 질문을 계속 던질 것이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증언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광복 신학의 세계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중심으로)

초판 인쇄 2026년 6월 23일  
초판 발행 2026년 6월 23일

지은이 | 정성욱  
발행인 | 이광복  
발행처 | 도서출판 힌들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117번길 84(위커힐 부근)

전화 | (02) 2202-7878  
팩스 | (02) 488-4092

[www.hindol.com](http://www.hindol.com)

비매품

㉪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인용·발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